증도·청산도·유치·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펄떡 펄떡’ 생명 살아 숨쉬는 ‘짱뚱어 천국’

신안군 증도면 중도리 짱뚱어 다리 아래 갯벌에서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이 짱뚱어를 잡기 위해 펄을 뒤지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증도 갯벌의 짱뚱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⑬ 신안 증도 갯벌

미네랄 풍부한 생명의 땅 국내 최대 짱뚱어 서식지

큰 눈을 머리에 인 짱뚱어 한 마리가 빠끔히 갯벌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기척 때문인지 갯벌 속으로 재빨리 머리를 숨겼다. 조심스러운 습성 탓인지 한참 동안 주위를 살피더니 어렵사리 몸을 갯벌 위로 올려놓았다.

이내 지느러미를 다리 삼아 낮은 포복으로 갯벌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한쪽 갯벌에서는 이미 두 마리의 짱뚱어가 추격전을 벌이며 ‘술래잡기’ 놀이가 한창이었다.

몸길이가 10㎝도 채 되지 않는 새끼 짱뚱어는 아직 지느러미의 힘이 없어서인지 기지 못하고, 온몸을 이용해 ‘점프’를 하며 형들의 뒤를 따랐다.

긴 장마철, 오랜만에 햇빛이 모습을 드러낸 탓일까? 몇몇 짱뚱어들은 갯벌 위에 몸을 이리 저리 뒤척거리며 일광욕을 즐겼고, 더위를 참지 못한 짱뚱어들은 갯벌 물구덩이에서 헤엄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가로운 갯벌 풍경과는 달리 한쪽에서는 참게와 짱뚱어 한 마리의 싸움질이 한창이었다. 짱뚱어가 자신의 앞 지느러미를 활짝 펴 위협하자 참게가 뒷걸음질쳤다. 짱뚱어는 사실상 갯벌에서 ‘대장’이다.

갯벌의 평화는 잠시였다. 갯벌에 한 무리의 ‘불청객’(?)이 등장하면서 모처럼 만에 맞은 평화가 깨진 것이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30여 명이 갯벌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한바탕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보호색을 이용해 몸을 감추고, 재빨리 펄 속으로 몸을 숨겨가며 아이들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렸다. 애꿎게 걸음이 느린 참게들만 아이들에 손에 잡혔다.

신안군 증도면 중동리 갯벌 위를 가로지르는 길이 470m짜리 짱뚱어 다리 위에서 내려다 본 갯벌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다.

청정 해역의 살아 숨 쉬는 갯벌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증도 갯벌은 참게와 칠게, 짱뚱어로 풍년을 이뤘다. 신안 증도 갯벌은 국내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한 갯벌 보유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도 바닷물의 미네랄 함량은 8천680ppm으로, 강원 속초의 376ppm에 비해 무려 23배에 달하는 청정 영양수다. 이 때문에 신안군 증도 짱뚱어는 더욱 유명하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짱뚱어 밀집도를 조사한 결과 신안 증도의 짱뚱어 밀집도는 1㎡ 0.19마리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짱뚱어는 움직임이 아주 빨라 쉽게 잡지 못한다.

그래서 갯벌 한가운데 조용히 서서 낚싯대를 사용해 잡는 일명 ‘훌치기’ 낚시를 이용한다. 갯벌 위에 낚시를 던져 짱뚱어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끌면서 재빨리 낚아채는 방법이다. 짱뚱어가 낚시 바늘을 무는 게 아니라 낚시 바늘에 짱뚱어의 몸이 걸리는 것이다.

짱뚱어가 조심스럽고 민감하기 때문에 낚싯대는 길면 길수록 좋다. 보통 10m 가량의 긴 낚싯대를 이용하고, 미늘 3~4개가 달린 낚시 바늘을 사용한다. 대부분 3월~11월까지 작업을 하며,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가장 많이 잡힌다. 현재 신안 증도에는 주민 2명이 ‘훌치기’ 낚시로 짱뚱어를 잡고 있다.

다도해 횟집 대표 이근섭(40)씨는 “증도에는 갯벌이 많고 좋은 만큼 많은 짱뚱어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썰물이 막 시작될 때가 가장 많이 잡히고, 보통 3~4시간 작업에 400~500마리 정도를 잡는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짱뚱어(Boleophthalmus pectinirostris)=망둥이 과의 바닷물고기. 몸길이 20㎝ 내외. 두 눈은 상접하여 높이 붙어 있고, 가슴지느러미는 좌우가 합쳐서 흡반(吸盤)을 형성한다. 피부는 두껍고 피부 호흡이 가능하다. 갯벌 위를 가슴지느러미로 기어다니며, 위험이 닥치면 구멍 길로 도망친다. 7월경에 둥지의 구멍 속에 산란한다. 갯벌에 구멍을 파고 산다. 우리나라 서해안, 중국·일본· 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전통음식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증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 여행노트 신안 증도

솔숲 ‘철학의 길’ 걸으며 깨달음 하나 얻고… 선착장엔 싱싱한 횟감이

한 송이, 두 송이씩 남았다. 어쩌다 눈에 띈다. 증도 어딜 가나 마주칠 수 있는 해당화가 몇 송이 남아있지 않다. 금방 피었다가 금방 저버리는 꽃, 증도에서는 ‘매람꽃’이라 부른다. 꽃구경 시기 놓친 것이 아쉽지만 한복 치마폭처럼 고운 자태에 ‘예쁘다’라는 혼잣말이 나온다.

상정봉이 있는 증서리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섬 얘기를 해 주시는데 섬 자랑 첫째가 노래방도 술집도 없는 섬이라는 것.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용조용한 섬이란다. 섬에 유흥업소가 없는 데는 주민 대부분이 성결교회 신자인 것이 크다. 일제강점기 ‘섬 교회의 어머니’로 불리는,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가 ‘1년에 고무신을 아홉 켤레나 바꿔 신을 정도’로 짐꾼 노릇 우체부노릇을 하며 전도를 한 결과다. 그래서 증도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를 찾아 성지순례를 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독교에서 증도는 ‘천국의 섬’으로 통한다.

상정봉에 오른다. 이유는 단 하나, 한반도 모양을 꼭 닮은 우전해수욕장의 곰솔숲을 보기 위해서다. 오르는 내내 기대가 크다. 20분 정도만 오르면 정상, 발걸음도 가볍다. 정상에 서니 보인다. 짱뚱어다리 너머로 한반도 모양. ‘푸른 대한민국’이 제대로 누워있다. 하늘 높이서 바라본 것처럼 선명한 한반도다. 넓게 펼쳐진 갯벌 또한 인상적이다. 국내 최초로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증도, 천연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구나 싶다.

방풍림인 곰솔숲 따라 가는 우전해수욕장은 운치가 있다. 숲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정자에 둥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밀려오는 흰 파도를 따라 걷다가 솔숲을 따라 걷다가 한다. 솔숲은 산책로가 좋다. 솔내음에, 불어오는 바람에, 짙은 그늘에 마음은 한적해 진다. 솔숲길에는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워낙 긴 숲이라 끝까지 걷다 보면 ‘깨달음 하나’ 얻겠다.

해수욕장 끝에 엘도라도 리조트가 있다. 휴양온 사람들 표정이 가벼운 옷차림만큼이나 여유롭다. 산책하고, 낚시하러 가고, 바다로 가고. 엘도라도에 바라본 우전해수욕장 광경은 멋지다. 초승달 모양으로 곱게 휘어진 모래밭이 푸른 바다를 안고 있다.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 귀에 닿지 않지만 그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린다. 바나나보트를 타고 바다를 시원하게 질주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가 짧기만 하겠다.

수상레저탑승장 아래서는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 작은 고깃배 한 척이 정박하더니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린다. 봉지를 들고 바구니를 들고 간다. 갓 잡은 송어를 뱃전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 팔딱거리는 싱싱함에 그 자리에서 회를 뜨는 사람도 있다. “오늘 저녁은 송어구이와 송어매운탕이다!”고 외치는 사람. 연인, 가족 모두 환한 웃음이 넘친다. /김창헌(자유기고가)

엘도라도리조트에서 바라본 초승달 모양의 우전해수욕장.